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9. 9

주간 달러/원 동향(9/2~9/6)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예상에 부합한 미 7월 PCE물가에도 소비 부문의 견조함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환율은 상승 출발. 이어 미 노동절 휴장으로 달러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영향 속 상승 마감
- 중반, 미 제조업 경기 위축세에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었으나 고용 관련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유입되며 추가 상승폭은 제한됨
- 후반, 미 JOLTs 구인건수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소식에 시장의 빅컷 기대가 이어지면서 하락 전환. 이어 주 후반, 미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 전 관망세 속 역외 매도 물량 유입에 큰 폭 하락 후 1,320원대 중반에서 마감

달러/원 전망

- 미국 8월 고용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연준 관계자들의 빅컷에 대한 여지 확대가 축소된 영향 등이 달러 강세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또한 전주 후반 미국 제조업 PMI의 시장 예상치 하회에 따른 침체 우려 재확산 영향 등도 위험회피 심리를 통한 안전자산 선호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37.5	1,344.2	1,326.5	1,327.6	-9.9

예상거래범위

1,335원 ~ 1,345원

엔·유로화 동향 (9/2~9/6)



유로화 동향

- 주초, 미 ISM 제조업 PMI 데이터가 기준선을 하회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함에 따라 위험회피 분위기 속 유로화는 약세 출발
- 중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신중한 스탠스를 강조한 독일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에 강세로 전환
- 후반, 유로존 소매판매 지표가 일부 개선된 가운데 미 서비스업 PMI 확장세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 완화에 추가 강세. 이어 주 후반, 유로존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잠정치 대비 0.1%p 하락하며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에 약세 전환 후 1.10달러선에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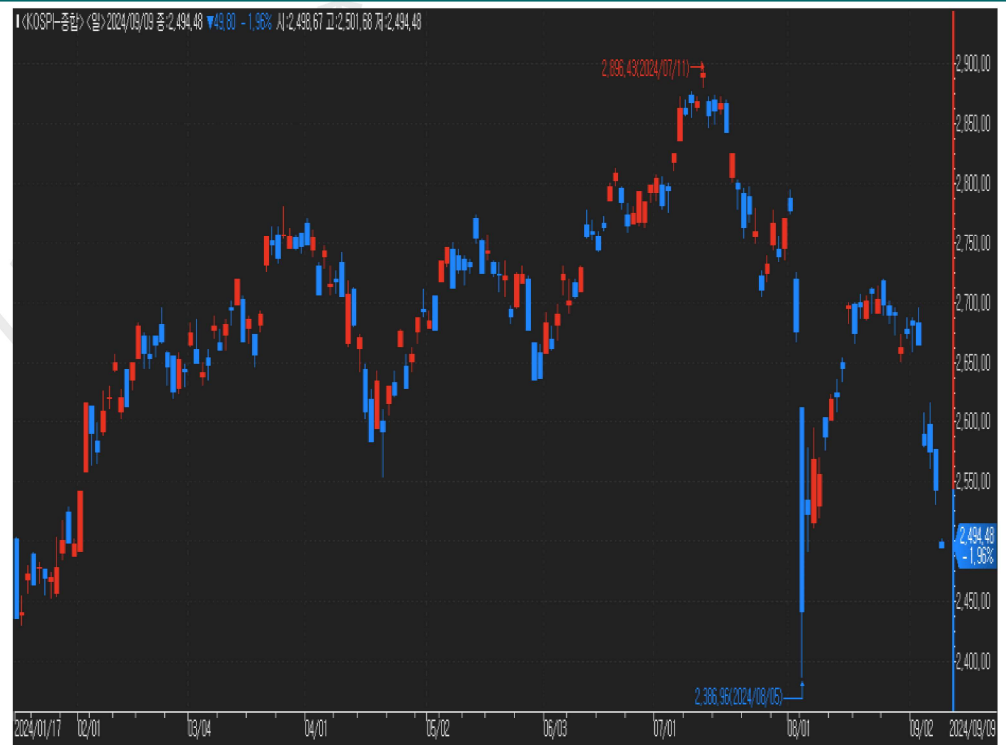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미 제조업 경기 위축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리세션 불안감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과 안전자산 수요에 엔화는 강세 출발
- 중반, 미 7월 구인건수가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둔화 시그널이 확인되자 미-일 금리차 축소되며 급격한 강세를 시현
- 후반, 예상을 밑돈 미 민간 부문 고용과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 등 혼재된 지표에도 연준 금리인하가 확실시되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 지속. 이어 주 후반, 미 고용시장 둔화로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확산되자 추가 강세를 보이며 140엔 초반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048	1.1155	1.1027	1.1086	+0.0038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6.2	147.2	141.8	142.3	-3.9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9/2~9/6)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국 7월 PCE 지표의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를 보인 가운데, 국고채금리는 수급 요인을 반영, 30년물 입찰 이후 매도 헤지 물량 확대 등으로 소폭 상승 출발. 이어 국내 8월 소비자물가 지표가 전년 동월대비 2.5% 상승하며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인 영향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소폭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미 제조업 PMI가 47.9를 기록, 시장예상치를 밑돌자 침체 전망이 재차 부각되며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대한 영향 등으로 하락 지속
- 후반 들어, 미 노동부 7월 구인이직보고서에서 구인 건수가 크게 부진한 흐름을 보임에 따른 미 국채 금리 하락 영향 반영 속 국고채 금리도 연동 흐름 나타낸 후, 주 후반, 미국 8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경기침체 우려가 재확산한 영향 반영하며 하락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외국인 투자자의 긍정적 수급 영향을 반영하며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 이어 코스피 거래대금 약화 속에 전일 뉴욕증시의 노동절 휴장 등에 따라 특이 이슈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 순매도 전환 등으로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미 ISM 제조업 PMI의 시장 예상치 하락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재발한 영향으로 국내외 반도체 업종 급락하며 큰 폭 하락 지속
- 후반 들어, 뉴욕 증시 혼조에도 상승 흐름 나타내던 코스피는 주 후반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 속 외국인 매도세 강화에 따라 하락 흐름 이어진 양상 나타내며 마감